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삼국시대 - 토기 다등식(多燈式) 등잔(燈盞) ②

토기는 소박하고 거칠고 단순한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다양한 문양과 장식을 더한 예술성이 높은 것이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토기 다등식 등잔 또한 후자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종류가 그러하다.

삼국시대 각 지역의 토기에 대한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선 고구려 토기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진 연질토기(軟質土器)가 많고, 간단한 문양에 가급적 장식을 배제한 바닥이 편평한 실용용기가 주류를 이룬다. 백제나 신라, 가야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배(高杯)의 형태나 기대(器臺)와 같은 굽다리를 갖춘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아마 고구려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도로 백제와 신라, 가야지역은 모두 삼한(三韓)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삼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라와 가야는 백제의 것보다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문양과 형태에 있어서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두 지역은 넓게 보면 낙동강을 경계로 한 동쪽의 경주 중심 신라토기와 서쪽의 가야문화권에서 출토되는 가야토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6세기부터는 토기형식의 혼혈(混血)이 일어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 이에 비해 백제토기는 형태상의 복잡성이 신라·가야토기에 비해 낮은 반면, 고구려 토기 보다는 높아 실용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와 후자의 중간쯤 된다고 보면 된다. 굽다리부분을 보아도 백제는 신라, 가야지역의 것에 비해 아무런 장식이 없는 짧은 모양을 지니고 있으며, 그릇의 형태와 문양은 오히려 중국(晉)과의 교류를 살펴 볼 수 있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토기 다등식 등잔은 거의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이다. 각 등잔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1**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인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서 경질(硬質)의 회색에 등근 형태의 몸통 위로 3개의 잔이 세워져 있으며, 각각 나팔모양의 잔 중간 부위에 한 줄의 띠(突帶)가 둘러져 있다. 몸통 위쪽과 가장자리 쪽에도 띠가 둘러져 있으며, 각이 잔 어깨선 아래로는 동그라미 문양이 1열로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굽다리부분에 또 한 줄의 띠가 둘러져 있으며, 투창(透窓) 없이 마무리되었다. 몸통에 붙어있는 3개의 잔은 한 몸통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사진 2**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 있다. 이 등잔은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인데, **사진 1**보다 좀 더 앞선 시기의 것이다. 몸체에 붙어있는 3개의 나팔모양 잔이 일정하게 부채꼴로 나란히 세워져 있다. 등잔에는 **사진 1**처럼 잔의 중간 부위에 한 줄의 띠가 둘러져 있으며, 굽다리에는 가는 장방형(長方形)의 구멍(透窓)이 뚫려 있다. 3개의 잔 역시 한 몸통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현재 잔 하나가 파손되어 수리된 모습이다.

사진 3 또한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인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장고형 대(臺)위에 5개의 나팔모양 잔이 한 몸통에 연결되어 있으며, 등잔 가운데 부분에 고사리말림 형태의 장식이 세워져 있다. 고사리말림 문양은 삼국시대 다른 자료에서도 더러 볼 수 있으며, 거슬러

사진1 토기 다등식 등잔// 통일신라시대// 높이 15cm, 입지름 4.4cm, 바닥지름 9.2cm, 몸통지름 15cm//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2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5cm//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3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4cm, 입지름 4.7cm// 계명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4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cm, 입지름 5.68cm, 받침지름 10.98cm, 최대지름 15.9cm, 굽 높이 6.55cm, 두께 0.75cm// 대구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올라가면 선사시대 빛과 태양을 상징하는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선사시대 바위그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사시대를 거쳐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연원과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진 4~사진 8은 모두 잔이 4개인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전체적으로 잔과 몸통, 굽다리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형태면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묶어도 무방할 것 같다. 다만 잔부분만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해 보면, 다시 **사진 4~사진 6**과 **사진 7, 사진 8**을 같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잔 입구에서부터 몸통 원통관에 이르기까지 기율기면에서 전자와 후자는 다소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들 등잔의 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사진 4**는 대구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회청색 경질(硬質)의 토기 등잔으로서 완형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4개의 잔이 원통 고리형 몸체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다. 몸체의 아래쪽에는 애벌레무늬[幼蟲紋]가 새겨져 있고, 등잔의 굽다리는 띠에 의해 2단으로 구획되어 각 단에 오밀조밀한 물결무늬[波狀紋]가 새겨져 있다. 다리 윗부분에는 사다리꼴 투창이, 그리고 다리 아랫부분에는 사각형의 투창이 뚫려있다. 등잔의 바깥쪽 일부에 녹황색의 자연 유(釉)가 형성되어 부분적으로 멍쳐있고, 회전물손질의 자국이 몸체에 남아 있다. **사진 5**는 **사진 4**와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몸체에 비해 잔의 형태가 다소 크고 길어 보이는데, 잔에는 띠와 함께 물결무늬가 돌아가며 새겨져 있다. 다리는 한 단에 아래위로 띠를 두르고, 4개의 사다리꼴 투창이 크게 뚫려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잔에 별 무늬가 없어 보이는 **사진 6**의 것은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자료이다. 경질에 회청색을 띠며, 토기 재질에 모래알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잔의 크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비슷한 형태를 띠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잔이 조금씩 벌어지다가 잔의 입술 부분에서는 안으로 약간 오므려져 있다. 4개의 잔이 몸통인 원통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 잔에는 원통관으로 이어진 구멍이 나 있다. 원통관은 깊은 반구형이며, 아래쪽에는 굽다리가 달려 있다. 잔을 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 몸체에 붙인 흔적이 나타난다. 굽다리에는 4개의 장방형 투창이 뚫려있고, 토기를 구울 때 다른 토기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이는 짚과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 7과 **사진 8**은 잔의 기율기가 다소 큰 형태로서 각각 원광대학교 박물관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토기 다등식 등잔이다. 경질에 흑색을 띠고 있으며, 4개의 등잔이 나팔모양으로 입이 벌어지고 아래쪽으로 점차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팔모양의 잔 입구 아래에는 각각 1줄의 띠를 두르고, 역시 한 몸통에서 등잔 4개를 내었다. 몸통 아래쪽 굽다리에는 장방형(長方形)의 투창이 1단 형식과 2단 형식으로 뚫려있으며, 등잔의 바닥부분에는 두터운 띠를 둘러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처리하였다. KEA

사진 및 자료 / 경북대학교 박물관, 계명대학교 박물관, 대구대학교 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5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cm, 밑지름 10.3cm//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6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5.5cm, 입지름 5.5cm, 몸통지름 11cm, 바닥지름 8.8cm//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7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입지름 5.4~6cm, 바닥지름 10.8cm, 높이 13.9cm// 원광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8 토기 다등식 등잔// 삼국시대// 높이 18.2cm, 입지름 7.5~9.0cm, 밑지름 12.0cm//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